

반려동물 동반관광 친화도시 육성 겐걸음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펫프렌들리 전북 홍보 일본 후지TV 도내서 반려동물 입양 관광 콘텐츠 촬영

국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500만을 돌파하며,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반려동물 동반 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내년 1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펫프렌들리 관광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입양교감 힐링여행, 우리집으로 가자 펫투어 프로그램 등 한국관광공사 및 마이펫플러스와 협업을 기획했다.

13일부터 1박 2일간 전주 일대에서 진행되는 입양교감 힐링여행은 일본 판 동물동장인 후지TV의 '사카가미 동물왕국' 촬영팀 12명이 모든 일정에 동행하며 전북의 반려동물 입양문화와 반려동물 동반 관광지를 촬영해 펫

프렌들리 전북을 일본 전역에 방영할 예정이다.

이번 여행은 반려견과 입양 희망자가 입양열차를 이용해 서울에서 전주로 이동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후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유명 관광지 및 카페, 반려동물 동반 숙소 등에서 일정을 함께하며 반려견 한복체험, 추억카드 작성 및 사진 촬영, 입양문화 격려카드 만들기 등의 다채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이번 촬영을 계기로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하는 사카가미 동물왕국의 진행자인 사카가미 시노부는 방송 촬영 일정 이후에는 한식의 원조도시인 전주의 노포를 누비며 개인 유튜브

채널의 미식관광 영상 콘텐츠도 촬영할 예정이다.

이번 여행에 참여하는 반려견은 지난 9월 화성의 반려견 번식장에서 구조되어 입양을 기다리는 반려견들이다.

반려동물 e커머스 플랫폼인 마이펫플러스와 협업을 통해 20명의 입양 희망자를 선정했고, 구조된 반려견과 1:1로 매칭해 입양을 위한 의미있는 여행을 함께할 수 있었다.

특히 전북도와 한국관광공사, 마이펫플러스가 협업하여 다방면의 투트를 통해 일본 후지TV 사카가미 동물왕국 촬영팀 섭외를 이끌어냈으며, 코레일 관광개발 역시 이번 반려동물 동반 관광 프로그램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다.

이번 반려동물 입양교감 힐링여행의 촬영내용은 일본 후지TV 사카가미 동물왕국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에 맞춰 2024년 1월 19일 방영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입양교감 힐링여행 프로그램은 기존의 동점심에 초점을 둔 반려동물 입양 캠페인이 아닌 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국내 최초의 입양여행 프로그램으로 그 의미가 깊다"며 "전북도가 1500만 펫(Pet-Family)족이 여행하고 싶은 반려동물 관광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내년도 주요 역점사업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치유 관광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펫쇼(Pet Show), 학술회의 등 반려동물 산업에 특화된 MICE 행사를 적극 유치·개최해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전북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성과보고회

도·재단·관광협회-센터 업무성과 공유 및 소통의 장 마련

전북도는 12일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에서 2023년 관광마케팅분야 성과 공유 및 상생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2023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도 관광산업과장,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전북관광협회 전무이사, 전주대학교 교수 및 관광전문가,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전라북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관광자원 발굴,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부터 홍보, 관광객 유치까지 종합적인 관광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에는 14개 시군의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해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SNS 홍보채널에 796건을

게시하고, 홍보 메일 17만건 발송 및 전북 관광 후기 이벤트 등 전북 관광 인지도 제고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도모했다.

또한, 센터의 역점 사업으로 교육여행(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 학교 방문 및 교육여행(수학여행)단 지원정책 설명 등 적극적인 교육여행단 유치 활동을 추진한 결과 2023년 68개교 1만246명 유치로, 2022년 56개교 6,509명 유치 대비 57% 실적이 증가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교육여행(수학여행)단의 인솔뿐만 아니라 단체여행객의 체류 일정 관리와 주요 관광지 해설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인 '투어매니저' 운영으로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는 12일 합영농공단지에서 대한민국 첫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최종오 익산시의장을 비롯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김수홍 국회의원, 관계기관 단체장,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마음을 한데 모았다.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공사 '첫 삽'

12일 합영농공단지서 착공식 개최... 2025년 완공 목표

미래 농생명 산업의 전진 기지가 될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이 첫 삽을 떴다.

익산시는 12일 합영농공단지서 대한민국 첫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최종오 익산시의장을 비롯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김수홍 국회의원, 관계기관 단체장,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마음을 한데 모았다.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국내 1호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익산에 이어 경북 포항과 강원 평창, 경남 진주에서도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이 잇따를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익산시가 공동 추진하는 이번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에는 총사업비 265억여 원이 투입된다. 조성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 면적 7,219㎡이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성될 캠퍼스에는 입주 벤처기업의 사무 공간과 회의실, 연구·실험실 등이 들어선다.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기업과 함께 연구·투자기관이 입주해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의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캠퍼스가 그린바이오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전폭 지원하는 혁신거점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 이곳에서는 창업 상담과 사업화 자금 지원, 컨설팅 서비스까지 사업의 전반적

인 단계를 다룬다. 시는 앞으로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 자원에 생명 공학 기술을 적용해 농업은 물론 전후방 산업 전반에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산업이다. 공업과 농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유망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시는 이번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이 정부가 집중하는 미래 농생명 산업 육성의 초석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익산에서 추진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사업과의 연계도 주목할 만하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자치경찰위, 치안정책 제안 간담회

도민 정책자문단 등 참석... 우수 활동자 자치경찰위원장 감사장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12일 도청에서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 도민 정책자문단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치경찰 도민 정책자문단' (이하 정책자문단)은 내가 살고있는 지역의 치안이나 교통안전 등과 관련된 위험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개선의견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치안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178명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정책자문단은 16세 이상 전북도민 또는 지역의 치안 협력단체 회원들로 도내 14개 시·군 지역민으로 20대에서 70대까지 포함돼 있다.

'자치경찰 도민 정책자문단' (이하 정책자문단)은 네이비 밴드(band) 및 자경위 홈페이지를 통해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활동 실적 우수자를 선정해 자치경찰위원장의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재훈 기자

토하 양식기술 연구성과 2차 발표회 개최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토하 양식기술에 대한 대국민 관심과 문의가 높아짐에 따라, 15일 부안예술회관에서 전국의 민·관 희망자를 대상으로 그간 연구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2차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발표 내용은 총 4부로 구성돼 있으며, 1~2부는 올해 신규 참석자를 위한 기초연구 과정 및 2023년 이전 종합성과 발표, 3~4부는 2022년에 추진한 민간 보급형 실내·외 실증시험연구 1차 추진 결과, 향후 계획 및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했다.

토하는 흙 '土' 새우 蝦 로서 '국내 민물새우류 총칭'의 표현으로 지역별

로 4~7종이 존재한다. 이중 산업적 가치가 높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품종은 기초 연구 결과, 새뱅이(Cardina denticulata denticulata De Haan)가 최적의 품종으로 확인됐으며, 전북도가 최초로 새뱅이 단일 완전양식기술을 확립했다.

현재 확립한 기술은 총 4단계(선별, 번식, 육성, 수확)로 그간 과도한 노동력과 숙련도가 요구됐지만 생산 안정성이 낮은 민물고기 양식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안정적인 소득과 함께 귀어·귀농·장년 창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역점을 뒀다.

1~2월(방학특강) 과정

스피치 · 웃음코칭 · 긴장해소

○ 현대인의 필수과목에 참여하여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① 매주 1회 야간수업 ② 도민 누구나 가능
③ 특강 등록금 15만원(2개월분) ④ 전문강사지도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

상담전화 : 231 - 6669, 010 - 7304 - 5665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 및 송년문화공연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에서 합동으로 장애인복지, 인권, 문화예술참여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24회 행사를 엽니다. 많은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

① 일시 : 2023년 12월 22일(금) 오후2시
② 장소 :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
③ 주요행사 : 개회식, 물품전달식, 송년문화공연, 행운권추첨 등

문의 : 286 - 6678, 팩스 : 287 - 6676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